

종합

3억 가진 사람도 '희망근로' 돈 타갔다

광주·전남 14명 ... 부적격자 수두룩

1억 이상자도 수백명, 선정 난맥상

‘희망근로 프로젝트’ 참여 대상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다수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저소득층 생계 지원이라는 취지가 크게 희석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안위 소속 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갑)이 8일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희망근로 참여자의 가구별 재산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11일 현재 전국 25만명에 이르는 희망근로 참가자 중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차상위계층’의 참여율은 44%(11만3천명)에 불과했다.

또 지난 8월말 기준(전체 25만2천500명)으로 1억3천500만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경우가 10.2%(2만5천770명)나 됐으며 재산이 3억원 이상인 사람이 5.6%(3천300명), 10억 이상 재력가가 2명이나 됐다.

광주의 경우 7천249명의 참여자 중 1억천500만원의 재산 기준 초과자가 2.4%인 170명이나 됐으며 이중 13명

은 3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 광주에서는 차상위계층을 벗어난 참여자 비율이 31%나 됐다.

전남의 경우도 1억3천500만원 이상의 재산 기준을 가진 참여자가 2.6%인 262명이었으며 이중 1명의 재산은 3억원 이상이었다. 또 차상위계층이 아닌 참여자가 36%나 됐다.

이와 함께 근로대가로 나눠주는 희망근로상품권의 회수율도 낮아 생계비 지원과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경우 전체 발행 금액 49억8천300여만원 중 46억5천370여만원이 회수돼 93.4%의 회수율을 보였으나 전남은 전체 발행 금액 68억290만

원 중 68.2%인 46억4천200만원만 회수됐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란 정부가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위해 근로능력이 있는 최저생계비 120%(4인 가구 기준 159만6천만원) 이하 소득자나 재산이 1억3천5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어 최대 6개월간 월 평균 83만원의 급여를 현금과 전통시장 상품권 등의 소비쿠폰으로 나눠주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1일부터 1조 7천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국 16개 시도, 230개 시·군·구 총 1만 9천여개 사업장에 25만명 이상을 투입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남구 '효사랑 가족음악회' 광주시 남구는 8일 남구 주월동 푸른길공원에서 주민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효사랑 가족음악회'를 열었다. 남구는 '효 사랑 조례' 제정 5주년을 기념하고 주민들에게 효행을 장려하기 위해 음악회를 마련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국고 손실 10대기관에 전남 기초단체 3곳

강진군과 장흥군, 해남군이 최근 5년간 국고손실액 발생 10대 기관에 포함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8일 감사원이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강진군은 지난 2005년 육상전북양식장 어업손실부담금 부담 지급으로 19억 3천여만원의 국고 손실을 입혀, 국고손실액 발생 10대 기관 가운데 두 번째를 기록했다. 또한, 해남군은 올해 6월 밝혀진 군 공무원의 생계 지원비 횡령으로 9억5천900만원의 국고

손실을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장흥군은 지난 2005년 강진군과 같은 육상전북양식장 폐업과 관련한 어업손실부담금 부담 지급으로 7억1천여만원의 국고 손실을 입혀 9위를 기록했다.

국고손실액 발생 상위기관 1위는 중부축산물물류센터로(71억9천만원) 나타났으며 서울고등검찰청, 한국과학기술원, 철도청, 육군본부, 서울 메트로, 근로복지공단 등이 포함됐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노벨문학상 독일 헤르타 뮐러

2009년 노벨문학상은 루마니아 태생의 독일 여성 작가 헤르타 뮐러(66·시진)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한림원은 8일 뮐러가 '저지대' 등의 작품을 통해 "응축된 시정과 산문의 진솔함으로 소외층의 풍경을 묘사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뮐러에게는 1천만 스웨덴크로나(140만달러)의 상금이 수여되며 시상식은 알프레드 노벨의 기일인 12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를 통해 "응축된 시정과 산문의 진솔함으로 소외층의 풍경을 묘사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뮐러에게는 1천만 스웨덴크로나(140만달러)의 상금이 수여되며 시상식은 알프레드 노벨의 기일인 12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빛의만평

- 김중두

심이 많이 불편하시겠다

고은씨 또 아쉽게 탈락

고은(76) 시인의 수상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올해 노벨문학상이 루마니아 출신의 독일 소설가 헤르타 뮐러에게 돌아가면서 한국인 작가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또다시 후일을 기약하게 됐다.

지난 몇 년간 꾸준히 노벨문학상 유력 후보로 거론돼 온 고은 시인은 올해 역시 '수상이 유력시되는 후보' 중 한 명이었으나, 아쉽게도 후일을 기약하게 됐다. 그의 시와 문학을 아끼는 독자들은 서운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인이 수상할 차례라는 소식으로 그는 때보다 기대를 모았던 고은 시인의 노벨문학상 수상이 아쉽게도 불발로 그쳤음에도 문단 관계자들은 고은 시인을 비롯한 한국 작가들의 역량을 감안할 때 노벨문학상 수상의 꿈은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단 안팎의 관계자들은 "한국 문학이 세계문학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노벨문학상 수상을 위해서는 수준 높은 번역을 통해 한국문학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양질의 번역가를 양성하는 게 우선 과제"라고 주장했다.

김주연 한국문학번역원장은 "이번에는 수상하지 못했지만 우리 문학이 해외에 번역, 소개된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고은 시인이 이렇게 해외 언론 등을 통해 여러번 후보로 거론되는 건 한국 문학의 수준이 높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대한민국 농업의 모든 것 보여준다

23일부터 나주시 '농업박람회' 개최

전남 친환경 기술 전시·학술행사도

전남 친환경농업의 현주소와 미래를 한눈에 보여주는 '제8회 대한민국 농업박람회'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나주시 산포면 전남도 농업기술원에서 개최된다.

'그린 농식품, 행복한 소비자' (Green Food, Happy Consumer)를 주제로 한 이번 농업박람회는 새로 개발된 친환경 농업기술 전시와 우수농산물 전시·판매를 통해 미래농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전남도 친환경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다.

올해 농업박람회는 신종 인플루엔자A의 확산을 우려해 당초 11일간 열 예정이던 행사기간을 줄이고, 농업과학관·농업홍보관 등 전시관 행사와 실제 학술행사, 성공 농업인 사례발표, 체험마당(18종) 등 일부 행사가 취소됐다.

전남도는 이번 농업박람회를 통해 수출계약 70억원, 약정판매 150억원, 현장판매 5억원 등 230억원의 소득을 창출할 계획이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10억 청자, 소더비 낙찰가는 1억2천만원"

성윤환 의원실 밝혀 ... "평가위원 3명 공모한듯"

강진군의 '청자 바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핵심 물건 가운데 하나인 청자상감연국 모란문과형 주자의 소더비 경매낙찰가가 15만4천달러(한화 1억2천만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실은 8일 "소더비 뉴욕 본사에 확인한 결과 지난 1992년 경매에 붙여졌던 이 청자의 최종 낙찰가가 1억2천만원이었다"고 밝혔다. 강진군은 지난 2007년 이 청자를 10억원에 구입했으며, 성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에서 이 청자 경매에 출품됐다며 가격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했다.

성 의원은 "감정가격이 현차만 별인 골동품의 특성상 3명의 감정평가위원이 해당 청자를 각각 9억5천만원, 10억5천만원, 11억원으로 감정한 것은 공모했다는 반증"이라며 "감정평가위원들은 소장자와 밀착돼 있는 인물들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6월 10억원에 구입한 청자상감 모란문 정병은 해당도자문화연구소가 소장한 것으로, 강진군이 소장처와 연관을 맺고 있던 2명을 감정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성 의원은 "감정위원 3명이 당시 청자상감 모란문 정병을 포함해 20건의 도자기에 대해 어떻게 똑같은 가격을 매길 수 있는 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윤기기자 penfoot@/강진=남철희기자 choull@

광고접수안내

☎(062)227-9600
☎FAX:(062)227-9500

드림결혼정보

국내·외 호남과 서울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010-6790-5408

분실

광주 C.C
송순자
상기 회원증(대,소)을 분실공고함.

무등빌딩임대

- 최상의 업무지역
- 금융지역, 상업지역
- 지하철역세권
- 신형 주차시설 완비
- 중앙공급식 냉·난방
- 탁월한 무등산 조망권
- 면적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 용도: 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

태양광발전소 및 사업인수

대상: 연간 기준가격 적용대상설비 발전소
-사용승인 후 현재 가동 중인 건
연간 기준가격 적용대상설비 선정 사업부지
-2010년, 2011년 선정 건

지역: 전국
규모: 200KW이상
기한: 2009. 10. 20
자금집행: 서류 완비 후 1개월 이내

미래를 창조하는 기업 **해와 땅**
상문의 ☎010-7219-7123

국토해양부 지정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원 (부동산 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건물 2,000㎡·토지 3,000㎡ 이상 부동산개발(건축허가등)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해서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을 상시 채용하여야 등록 가능!!

◎ 교육일시 및 장소
- 2009.10.15.(목) ~ 2009.10.20.(화) / (총 60시간 강의)
- 광주대학교 극기관 3층 305호

◎ 교육대상

구분	전문인력의 유형
자격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개발업 3년 종사) 건축사, 건설기술자(고급·특급), 자산운영관리인력 등
학·석사 학력자	4년제 대학 해당학과 또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개발업법인 등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실무경력자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금융기관등 개발업무 관련 종사자, 개발업 관련 법인 대표자 등

* 수강하고자 하는 분들은 등록 전 수강자격 등에 대하여 사무국으로 문의바람

◎ 교육비: 67만원 (교재 및 점심식사 제공, 강의를 시지한 이후 환불은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www.gred.kr 참조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되려면 국토해양부 지정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원에서 전문교육을 꼭 이수하여야 합니다.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원
문의/전/화 www.gred.kr
• 원장 이명규 교수 ☎(062)670-2421 • 사무국 김병철 ☎(062)233-3119
• 부원장 강동욱 변호사 ☎(062)233-3119 f.☎(062)233-3117